

## Robert Vannoy 박사, 신명기 강의 8

© 2011, Robert Vannoy 박사, Perry Phillips 박사 및 Ted Hildebrandt

### 구약성서

검토 에 나오는 언약 형식의 현재 상태

지난 주에 우리는 개요에 관한 로마서 숫자 III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 페이지, “신명기의 언약 형식과 그 역사적 의미” 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 “A”는 “종종 문제가 되는 책의 구조적 무결성”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대한 일반적인 접근 방식은 원래의 핵심은 있지만 많은 추가 증분과 이중 서론을 사용하여 신명기를 찾는 것입니다. Von Rad, “B”는 1938년에 신명기의 구조적 패턴의 중요성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1938년에 Von Rod는 이 책을 보고 이것에 일관된 구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그 개요를 설명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는 한때 형태를 비판적으로 보았고 전체가 구조적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C” 메리디스 클라인(Meredith Kline)은 신명기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책의 완전성을 기리는 형식 비평 방법론을 활용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신명기의 해석과 날짜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주에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C”에서 보냈습니다. 1번부터 12

번까지의 내용은 조약-규약 유추에 대한 클라인의 주장을 요약하고 그 유추가 현재까지 의미하는 바를 요약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 상단인 “D”, “구약의 언약 형식과 그 역사적 의미: 신명기 논쟁에서의 현재 상황”이 나옵니다. 자, 아마도 이 “D”가 오늘 우리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문제를 집중화하는 데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D”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D” 아래에는 1. “언약 형식의 본질과 그 기원: 제의적 또는 역사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일반 논평 19, 조쉬. 24 및 1 샘. 12 1번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약의 언약 형식과 그 역사적 의미: 신명기 논쟁의 현재 상황”이라는 제목에 대해 몇 가지 일반적인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오늘날 구약성서에서 식별 가능한 언약의 형태를 찾을 수 있으며, 그 형태는 신명기의 구조에서 찾을 수 있다는 데 널리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논의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언약이 원래 세워졌던 시내산 자료입니다. 대부분은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여호와에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온 이스라엘을 세겔으로 부르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언약갱신예식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생애가 끝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시점에 백성들에게 주님께 대한 충성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합니다.

당신은 모세의 생애 마지막인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서와 마찬가지로 리더십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리더십의 이러한 전환은 리더십 전환 기간 동안 언약의 연속성을 제공하려고 시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4장에서는 신명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조약 형식의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사무엘상 12장으로 가보면, 제가 쓴 논문이 사무엘상 12장을 다루고 있는데, 조약 형식, 즉 언약 형식의 동일한 요소, 또는 적어도 몇 가지 동일한 요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장은 사무엘의 삶의 마지막 부분으로, 사무엘이 사울 왕국의 설립을 위해 군주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사무엘상 11장 14절부터 12장 25절까지가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바뀌면서 그 과도기를 마련하기 위한 “언약 연속성”이라 불리는 길갈의 언약 갱신 예식이라고 본다.

언약과 역사: Baltzer et al.

내 요점은 출애굽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상 12장에서 언약의 형식을 찾을 수 있다는 데 꽤 광범위한 합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만장일치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형식의 기원과 그에 따른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합의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토론보다 논쟁이 더 심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형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원은 무엇입니까? 이 형식의 역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부 학자들은 문학 형식의 존재로부터 역사적 결론을 도출하려는 시도에 반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단지 형식을 보고 싶어할 뿐, 그것으로부터 역사적 결론을 도출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내 책 144페이지, 각주 30에서 멘델슨의 기사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의 율법과 언약”에 대해 논평하면서 *The Covenant Formulary* 라는 책을 쓴 발처(Baltzer)라는 사람은 멘델슨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현재 작업은 보다 비판적인 접근 방식으로 제한되는 반면, 역사적 질문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시작을 토대로 역사적 영역에서 더 많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지만, 두 가지 질문을 성급하게 하나로 묶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처가 하고 있는 일은 형식의 존재에 대해 역사적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다. 그는 두 가지 질문을 조기에 하나로 묶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위험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독일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타이트 언약 조약과 구약 언약의 공식화의 유사성을 설명할 수 있는 역사적 경로는 아직 매우 불분명합니다.” 히타이트 조약 형식과 언약 사이의 역사적 연관성은 매우 불분명하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 다음 또 다른 동료는 Baltzer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Baltzer는 자신의 비판적 조사 형식과 에피소드

내레이터의 역사성 사이에 뚜렷한 분리가 존재합니다. 역사적 문제에 대한 이러한 유보(아직 회의론에 한참 미치지 못함)는 폰 라트의 영향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러한 방식으로 Baltzer는 성급하고 성급한 결론을 성공적으로 피했습니다. 저자는 자신의 자료 범위를 제한할 권리가 있지만 발처가 역사적 결론을 거부하는 것은 실망스럽습니다.”

DJ 맥카시

그런 다음 DJ McCarthy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너무 많은 주장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이 비유에서 부당한 역사적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비유와 마찬가지로 증거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비유를 유지하되 비유에서 역사적 결론을 도출하는 데 주의하십시오. 글썄요, 중요한 질문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생각엔 형식 비평적 방법이 자주 남용되는 곳이 바로 여기인 것 같다. 특정 형식을 얻고 해당 형식을 생성한 설정을 매우 추측적으로 재구성하면 도출된 역사적 결론이 매우 의심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세요, 형식 비평 방법론에 관한 모든 것은 만약 당신이 특정한 문학적 형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 형식을 발생시킨 특정한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형태를 발생시킨 기술 용어인 *Sitz im Leben* 이고, 여러분은 돌아가서 그 형태를 생성한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특정 형식의 역사적 배경을 묘사하려는 현명한 시도는 유용한 해석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형식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발생시킨 배경이 무엇인지 현명하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형식의 의미와 해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피한다면 형식에 대한 연구를 빈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우리가 언약의 형태와 그 역사적 의미에 관해 이야기할 때 확실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 형태의 역사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 1. 언약 형태의 성격과 그 기원: 제의적이거나 역사적.

Ok 1. "언약 형식의 성격과 그 기원: 제의적 또는 역사적." 이제 저는 제의와 역사적이 반드시 반대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습니다. 어떤 것은 제의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일 수 있지만, 매우 실제적인 의미에서 나는 이 형태가 제의적이고 역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이 비준된 상황에서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제사, 피뿌림 등이 있었기 때문에 제의라고 할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역사적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한 이유는 von Rad가 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를 기억하세요 . 그리고 그 이전에도 우리는 von Rad가 1938년에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 말한 것을 언급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신명기의 구조에 대해 말한 것 같습니다. 그가 책의 윤곽을 잡은 방식과 그 기본 구조입니다. 그는 그 구조가 제의에서 파생되었다고 제안했고, 그 구조가 이스라엘에 보존되어 이스라엘에 전해졌다고 느꼈고, 레위인의 설교를 통해 신명기에서 그 위치를 찾았습니다. 개정.

그것은 1938년이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조약-규약 분석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전이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이었습니다. Mendenhall의 기사는 1954년에 나온 것이므로 꽤 나중에 나온 것입니다. 보다 최근의 조약 자료가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von Rad는 조약과 조약의 비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1957년에 출판된 그의 *규약신학*을 보면 이것이 첫 권인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근동 조약, 특히 14세기와 13세기에 히타이트가 체결한 조약의 비교. BC는 규약의 구절들과 함께 둘 사이의 공통점, 특히 형식의 문제를 너무나 많이 밝혀냈기 때문에 종주권 조약과 특정 구절에서 주어진 이스라엘과 야훼의 언약의 세부 사항에 대한 설명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규약에서.” 그런 다음 그는 우리가 논의한 많은 내용, 즉 조약의 구조와 그것이 성경 자료와 어떻게 비교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제공합니다. 그는 이것이 내가 방금 언급한 구절을 포함하여 여러 구절에서 발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직 답변의 세부사항에 대한 의문이 많다고 해도 두 종류의 자료가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는 적어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며 “조약과 약정은 재료이며, 형식은 사도 이후 시대의 본문에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물론 이스라엘이 점령했지만 우리는 관련 구약 자료의 연대를 기억합니다. 관련 구약 자료의 연대를 기억할 때 , 우리는 이스라엘이 매우 일찍, 아마도 재판관 시대부터 이 조약 체계를 알게 되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제 흥미롭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역사의 아주 초기, 아마도 사사기 시대에 이것을 알게 되었을 기본 구조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957년 그의 *구약 신학* 에서였습니다 .

예를 들어 Von Rad는 여호수아 24장에서 언약 조약 기간의 시작을 발견합니다. 그는 1957년 자신의 *신학* 에서 이것을 언급합니다 . 1964년에 그는 신명기 주석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다시 논의하는데, 지금은 신명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21~23페이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는 학자들이 최근에야 인식한 신명기에 사용된 한 가지 유형의 구성, 즉 언약에 사용된 형식을 언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고대 근동 지역, 특히 히타이트족 이 강세를 보인 시대 에는 일정한 패턴에 따라 봉신들과 조약을 맺곤 했는데, 이러한 조약 패턴이 구약성서의 적지 않은 부분에서 추적될 수 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명기에서.” 다시 그는 그 형식에 대해 논의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명기 시대에 이 패턴은 문학적 및 설교적



목적으로 오랫동안 자유롭게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개별 단위가 매우 산발적으로 사용된 경우에도 의심할 바 없이 이미 언급된 완전한 형태를 모델로 한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이 가신과의 초기 근동 조약의 형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아주 열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신과의 초기 근동 조약의 형태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그는 신명기가 배열된 패턴에 따라 *Sitz im Leben* 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는다면 그것은 단지 제의적 축하에서만 따온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이러한 문화적 기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의적인 축하 행사에서만 취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언약 갱신의 잔치에서였을 것입니다. 이 추측은 공식적인 언약 체결(신명기 26:16-19)을 삽입함으로써 뒷받침됩니다. 따라서 정규 언약 형식의 고전적인 패턴은 어쨌든 신명기에서 절단된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그 배경은 신명기의 형식이 원래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 책에서는 이미 폐기된 송배입니다. 그 이유는 그 내용이 이제 평신도들에게 설교적 가르침의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즉,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책의 구조에서 조약-언약의 유추를 발견하더라도 신명기의 기본 형태는 평신도를 위한 설교적 교훈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는 레위인들이 설교할 때 이 언약 형식을 보존했다는 그의 “레위학파 이론”으로 바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그들이 제의에 보존되어 여러 세대에 걸쳐 전해 내려온 고대 전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6 페이지의 연대를 결론지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북쪽 성소 중 하나인 세겜이나 벳엘을 신명기의 기원지로 가정할 것이며, 621년 이전 세기가 그 날짜임에 틀림없다.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즉, 기원전 621년 이전 세기입니다. 700년대쯤이겠죠. 꽤 늦은 시간인데, 그는 신명기에서 발견되는 형식이 제의에서 파생되고 레위인의 설교에 의해 보존된 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다시피, 비록 그가 히타이트 조약 자료와 유사점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은 형식의 기원에 대한 제의적 파생물입니다.

제의적 기원 가설에 대한 바노이의 분석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의적 기원 가설은 실제로 문제의 형식의 본질과 구약성서에서의 그 사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양식을 처음 사용하는 이유와 상황에 대한 더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였나요? 그는 실제로 그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성경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언약의 자료를 제시할 때 조약 언약의 최초 활용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그것의 유래이다. 따라서

클라인이 말했듯이, “하나님께서서는 이 언약을 그의 백성에게 제시하고 알려진 법적 문서에 따라 구조화하는 수단으로 당시 알려진 형식이었던 히타이트 조약 형식의 법적 도구를 사용하셨습니다.”

JA Thompson은 *Reformed Theological Review* 의 “The Cultic Credo and the Sinai Tradition”(참고문헌 5페이지에 있음)이라는 기사에서 다음 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조약의 기본 측면. 비록 그것이 어떤 강화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가신이 조약을 수락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으로 제시된 이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정확한 개요를 표현했다는 것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약의 역사 서문은 우리에게 실제 역사를 제공하고, 대왕에 대한 가신의 의무의 기초를 제공하는 대왕과 가신 사이의 이전 관계를 알려줍니다.” “ 물론 폰 라드는 신명기와 출애굽기 19-24장을 논할 때 시내산 사건의 역사적 설명에 주목합니다.” 역사적 프롤로그 역할을 하는 신명기의 첫 번째 부분은 되돌아가서 리뷰합니다. 시나이.

그러나 Von Rad에게 이 역사적 서술은 역사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제의적 전설일 뿐입니다 . 그러나 제의 전설이 요구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제기되어야 한다. 보세요, 역사적인 프롤로그가 작동하는 방식은 이것이 지속적인 관계의 기초가 되려면 실제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톰슨은 “제의 전례가 근본적인 역사적 사건과 분리되어야 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이 요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아마도 컬트에 형성된 보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소 추측적입니다. 하지만 알다시피, 그것은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유래되었는가? 그 사건의 역사적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von Rad의 제의 파생 관점에서 나온 그 요점은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 관계, 즉 언약 관계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 확립되었습니다. 이 형식은 언약이 원래 공식적으로 확립된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1. "언약 형식의 본질: 그것은 제의적인가 아니면 역사적인가?"에서 von Rad는 형식의 기원에 대한 질문을 정당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전통과 신앙의 배경이나 최초의 소개를 찾기 위해 시내산으로 돌아갑니다.

## 2. 조약 형식의 발전과 조약서의 연대에 대한 의미

### 신명기

좋습니다. 2. 우리는 신명기 논쟁의 현재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는 "조약 형식의 진화와 신명기 연대에 대한 의미"입니다. 지난 주에 클라인의 견해를 논의했을 때, 모자이크 기원에 대한 그의 주장의 상당 부분이 조약 형식이 고전적인 히타이트 패턴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진화적 발전을 거쳤다는 그의 주장에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기를 바랍니다. 이후 조약, 특히 Esarhaddon 조약과 Sefire 조약에서는 복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나는 그 질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질문을 받았던 지점이고 그것에 달려 있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 1. 에사르하돈의 속국 조약과 히타이트 종주국 조약의 비교

그럼 a) “에사르하돈의 가신 조약과 히타이트 종주국 조약을 비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서문: 에사르하돈의 가신 조약은 1955년 영국 고고학자에 의해 현재 이라크인 님루드(Nimrud)라는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명판은 기원전 612년 메디아인들이 화재로 건물을 파괴한 결과로 생긴 잔해 가운데 나무 사원의 알현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텍스트는 바바라 파커(Barbara Parker)라는 여성이 발견한 조약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원전 672년 앗시리아 왕 에사르하돈이 맺은 조약이다. 조약은 여러 개 있었지만 내용은 같았다. 단지 여러 개인의 수로 조약이 체결되었고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Esarhaddon의 이름이 아니라 하위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텍스트는 중복되었으며 조약을 체결한 여러 통치자의 이름만 다릅니다. 따라서 조약은 실제로 Esarhaddon 및 다양한 속국과의 조약 텍스트였습니다. 하지만 DJ Wiseman은 1958년에 *이라크 (Iraq)*라는 책, 20권에 이 내용을 출판했습니다. *이라크는 1958년에* 발행된 저널의 이름인 20권입니다.

해당 조약을 살펴보면 특정 요소가 이전 히타이트 조약의 조약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바로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6가지 요소를 따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서문; 둘째, 증인으로서의 신들; 셋째, 규정; 넷째, 저주; 다섯째, 충성을 맹세합니다. 여섯째, 저주의 또 다른 부분은 직유 형태의 저주입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전문입니다. 히타이트 조약에서는 조약 당사자를 소개하고, 에사르하돈 조약의 경우에는 문서의 목적을 정확히 명시합니다. 에사르하돈은 “앗수르 왕 에살하돈의 아들 왕세자 아슈르바니팔에 대하여 ” 라고 말합니다. 이 조약의 요점은 에사르하돈이 죽으면 왕세자인 이 특정한 아들이 그의 뒤를 잇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앗수르의 왕위 계승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아시리아 왕 에사르하돈의 아들이자 왕세자 아슈르바니 팔 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약은 에사르하돈이 아시리아 제국에서 권력을 쥐고 있던 모든 통치자들을 구속할 것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개인의 사본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서문이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신들은 조약이 체결된 신들의 목록이 있는 두 번째 섹션입니다 . 의식의 본문에는 이 신들의 형상을 가져왔고 누구 앞에서 조약이 공식적으로 제정되고 발효되었는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17명의 신이

열거되어 있다. 그래서 당신은 신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이러한 의미에서 다소 좁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Ashurbanipal이 Esarhaddon 의 후계자로 지정됨에 따라 통치의 영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 그게 조약의 관심사야. 따라서 규정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은 후계자로서 Ashurbanipal의 지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종류의 상황입니다. 조항의 범위와 해당 조항이 다루는 우발사항을 이해하려면 조약을 거의 읽어야 합니다.

가신이 지킬 것을 맹세하는 조항은 33개이다. 그들은 다섯 가지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첫째, Esarhaddon의 후계자 로서 Ashurbanipal 에 대한 가신의 충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 둘째, 반군에 대해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셋째, 왕위를 찬탈하려는 시도를 방해하는 것들이다. 넷째, 아슈르바니팔을 폐위시키기 위한 다른 왕실 구성원과의 음모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Esarhaddon을 왕세자로서 Ashurbanipal에 대항하려는 접근 방식에 응답하지 않고 Ashurbanipal과 그의 형제 사이를 분열시키려는 음모를 Ashurbanipal에보고하려는 개인 권력을 주장하는 사람의 영향을받지 않습니다. 다섯째, 이는 행한 맹세의 영속적이고 구속력 있는 성격을 강조합니다. 규정은 좁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안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즉, 계승권과 Esarhaddon의 죽음 이후 Ashurbanipal 의 지속적인 권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가신과 에 사르하돈 및 아슈르바니 팔의 관계를 규정하는 355줄의 규정을 따르면 , 서판의 맹세를 변경, 무시, 위반하거나 삭제하는 사람에 대한 저주 선언으로 보호되는 문서를 갖게 됩니다. 각 신은 별도로 이름이 지정되며 각 특정 신의 활동에 대한 특정 저주 특성이 발음됩니다. 이 모든 신들은 저주와 함께 나열되어 있으며, 각 신은 각각에 연결된 특정 저주와 함께 다시 나열됩니다. 예를 들면, “하늘과 땅의 빛을 멸하시며 네 눈이 어두워지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로 너를 옳게 판단하지 말라. 어둠 속을 걸어라.’”

샤마시는 태양신이므로 당신은 관련된 신의 특별한 특성과 관련된 저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규정을 어긴 사람에게 이러한 많은 신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충성의 맹세입니다. 이 섹션의 가신들은 Esarhaddon 과 Ashurbanipal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며 여기의 언어는 1인칭 복수로 전환됩니다. 이는 문서가 사람들이 “우리가 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공개 의식에서 사용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여섯째, 충성맹세 이후 직유형태의 저주가 있다. 당신은 저주로 돌아갑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일반적인 관찰에서 얻은 직유를 사용하는 스타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수컷과 암컷과 어린 양의 수컷과 암컷이 갈라져 그 내장이 그 발 위에 굴러다니는 것 같이 너희 아들딸들의 내장도 너희 발 위에 굴러가게 하라.” 그것은 “저주 직유”라고 불리는 종류의 직유가 포함된 긴 섹션입니다. DJ Wisemen은 조약



파기의 결과를 생생하게 설명하기 위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 중 다수가 국민 앞에서 시연되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즉, 남녀 아이들의 내장 조각이 발위로 굴러다니는 것일 수도 있다. 그들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시연하고 보여주기 위해 이 동물 중 일부를 잘라서 공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이해하려면 이 글을 거의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동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지 않듯이, 여러분의 들판과 초원에는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땅에 이슬 대신 불타는 석탄 비가 내리기를 바랍니다. 굶주린 암양이 그 새끼의 살을 입에 넣듯이, 너희도 너희 형제와 아들, 딸들의 살로 배고픔을 채워라. 뱀과 몽구스가 같은 구멍에 들어가서 함께 누워서 서로 다리를 자를 생각만 하지 않듯이, 너희와 너희 여인네들도 같은 방에 들어가 서로의 생명을 자를 생각을 하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 섹션 이후 조약은 날짜와 조약의 관심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갑자기 종료되며, 이는 Ashurbanipal이 Esarhaddon 의 왕자이자 후계자로 임명되는 것입니다 . 그것은 양식에 대한 간략한 조사입니다.

3. 역사적 프롤로그의 부재 개요 의 3번은       앗시리아 조약 조약과 히타이트 사이에 약간의 대조와 차이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 세 번째는 '역사적 프롤로그의 부재' 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히타이트 조약은 편차가 거의 없는 다소 일관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타이트 조약과 앗시리아

조약 사이의 가장 눈에 띄는 대조는 히타이트 조약 형식의 두 번째 부분이 아시리아 조약 형식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히타이트 조약이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서문, 역사적 프롤로그, 규정 - 기본적으로 저주, 증인 및 축복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아시리아 조약에는 역사적 서문이 없습니다. 이제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히타이트 조약의 역사적 프롤로그가 조약의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이는 가신이 조약의 규정을 통해 복종할 의무와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역사적 서문에 열거된 대왕의 어진 행적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당신은 규정이 뒤따르는 역사적인 프롤로그를 얻습니다. 역사적인 프롤로그는 자비로운 대왕에 대한 가신의 의무감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위대한 왕이 규정을 준수하라는 요구를 정당화하는 것은 그러한 자비로운 행위에 기초한 것입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히타이트 조약의 깨진 텍스트에는 역사적 서문이 있거나 적어도 하나의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논쟁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Mendenhall 이전의 히타이트 조약에 대한 초기 연구는 구약의 언약 자료와 히타이트 조약 세트 사이의 유사성에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조약은 실제로 그보다 오래 전에 발표되었고 연구되었지만 구약의 기초가 되는 언약과의 연관성은 결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헝가리인 Victor Korosec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1931년 독일에서 히타이트 조약 텍스트를

논의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에는 성경적 비교 없이 히타이트 조약 본문에 대한 표준적인 처리가 있었습니다. 코로섹은 1931년 역사 프롤로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은 하투사(히타이트 제국의 수도)에서 이를 모든 가신 조약의 필수 요소로 간주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본문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니다.

최근 DJ McCarthy의 작업 전반에 걸쳐 그들은 이 책인 *Treatment of Covenant*를 출판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당신의 참고문헌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이제 이 책보다 더 나중 판으로 나왔습니다. 5페이지 상단, 1978년 *계약 처리에서* 매카시는 모든 히타이트 조약이 역사적 프롤로그를 갖고 있다는 생각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 중 일부에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조약 형식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H. McCarthy에 대한 Huffman의 반응      이제 당신은 그 문제에 관해 많은 상세한 토론에 참여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형식의 필수 요소는 아니라고 말하는 McCarthy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Herbert Huffman은 이에 대해 McCarthy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신의 참고문헌에는 없지만 허버트 허프만(Herbert Huffman)은 1965년 *가톨릭 성경 계간지* 27권 1

09-110페이지에 “출애굽, 시내산, 신조” 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질문에 대해 McCarthy와 상호 작용합니다. 그는 Korosec을 지지합니다. 허프만은 “역사적 프롤로그의 생략과 첫 번째 천년 조약에서 더 정교하고 다채로운 저주의 경향” (즉 에사르하돈 조약)은 “조약 관계 개념의 근본적인 변화를 나타낸다. 권력은 설득을 대체하므로 조약의 형태는 여러 측면에서 동일하지만 조약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DJ Wiseman과 McCarthy와는 대조적으로 조약이 기본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된다고 말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것에 대해 자세히 논의할 시간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McCarthy가 말한 초기 조약인 5개 조약에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다고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역사가 조약 형식의 필수 요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Huffman은 지적합니다. 여기서 McCarthy가 역사적 프롤로그가 누락되었다고 말한 다섯 가지 조약을 살펴보면 Huffman은 다섯 가지 조약을 모두 분석하고 McCarthy가 그 조약을 보면서 도출한 결론에 대한 근거가 실제로 없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조약인 Mursilis II와 Amurra의 Nicmetpah 사이의 조약에 대해 Huffman은 프롤로그가 있지만 매우 짧다고 말합니다. “너 닉메트바는 내가 너를 고토로 돌려보내고 네 아버지의 왕위에 앉게 하였느니라” 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프롤로그입니다. 한

문장이지만, 허프먼의 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매카시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역사적 프롤로그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허프먼의 말이 옳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조약인 무르실리스 2세와 키아셀리스 사이의 조약은 단편적인 조약입니다. 예상했던 위치에 프롤로그가 없지만 Huffman은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는 McCarthy가 제목과 규정 사이를 제외하고는 역사적 프롤로그가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시퀀스가 서문, 규정, 프롤로그인 Suppiluliuma I과 Arziras 사이의 조약의 히타이트 버전을 간과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는 이 텍스트에 프롤로그가 있지만 순서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표준 순서를 따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수필룰리우마(Suppiluliuma)와 후카나스(Hukkanas) 사이의 조약에는 프롤로그가 있지만 다시 간략합니다. “보세요, 후카나 여러분, 나는 당신을 단순하지만 능력 있는 사람으로 영접했고, 당신을 존경했으며,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과 하투사를 영접하고 우호적인 방법으로 소개했습니다. 내가 내 여동생을 당신에게 아내로 주었어요.” 이는 역사적 프롤로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나는 4개와 5개를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에 대해서는 다소 기술적인 논쟁에 들어가게 됩니다. 조약에 프롤로그가 있나요, 없나요? McCarthy는 아니오라고 말했지만 Huffman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합리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인 프롤로그가 없다는 것은 히타이트 형식에서 벗어난 것이며 앞서 언급했듯이 프롤로그가 조약의 분위기를 설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조약 파트너 사이의 사랑스럽고 신뢰하는 관계 대신 아시리아 조약에 도달하면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습니다. 먼저 열거된 대왕들의 자비로운 행위는 없습니다. 대신 당신은 가신에게 원시 권력을 부과합니다. 가신은 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그가 겪게 될 저주의 이중 목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 프롤로그가 없다는 것은 문학적 형식의 차이일 뿐만 아니라 조약 파트너 간의 관계와 관련하여 매우 다른 정신을 설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주국과 그의 가신 사이에 확립된 관계의 질은 상당히 다릅니다.

10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시 돌아와서 이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각본: Brittany Gordon, Ethan Kilgore, Jenny Machado, Maggie Brooks,

Megan Avery, 편집자: William Hagen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Perry Phillips 박사의 최종 편집

페리 필립스 박사가 다시 해설함